

#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셰필드 대학교
파견기간	18. 09. 24. ~ 18. 02. 01.
프로그램	학기제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학교에서 추천해준 한화보험으로 하였습니다. 각종 보험을 검색해 본 결과 한화보험이 가장 저렴하였습니다. 보험을 할 때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낮으면 나중에 실제로 아플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0만원 이상 보상해주는 보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영국은 6개월 이하로 나가게 되면 STSV(Short term study Visa)라는 비자를 입국 심사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챙겨주는 서류만 잘 챙겨서 가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항공권은 저는 중동 경유를 원했기 때문에 에티하드와 에미레이츠 중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에티하드가 좀더 저렴했기에 에티하드로 예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는 아부다비, 오는 길에는 두바이를 여행하였는데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환승을 하는 것 좀더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필요 물품은 리스트를 정해 놓고 챙기면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추위를 잘 타신다면 전기장판을 가져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또한 각종 약도 있으면 좋습니다. 최대한 버릴 수 있는 옷들을 가져와 나중에 갈 때 버리고 가면 좀 더 편해집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영국은 당연히 영어가 공용어이고 실제로 모두 영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셰필드는 지역특성상 South Yorkshire 발음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상생활에서 못 알아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영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라고 생각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개인적이지만 모두에

게 친절합니다. 크게 적응하기 어렵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문화에 관련된 수업도 해주기 때문에 적응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필드의 물가는 영국에서도 짠 편에 속합니다. 식당은 대부분 8~10파운드면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점심에는 3~6파운드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값은 우리나라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국물품을 파는 중국마트 같은 곳은 그다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여행 겸 어학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대학교인 세필드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나-2. 공항 - 학교

자체 픽업이 있습니다. 두가지 시간대로 나누어 공항으로 픽업을 와 주었습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내용은 기본적으로 8시45분까지 학교에 도착하여 12시45분까지 영어수업을 받게 됩니다. 점심시간 후 월화목금에는 Social, Culture, Literature, Media의 과목에 맞추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모든 학생이 같이 듣는 Lecture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15분에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저희는 쉼어룸을 사용하였습니다. 총복대에서 6명이 갔는데 6인실에 배정되어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각자 1인 1실로 배정받았고 화장실도 각방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을 공유하였습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세필드대학교에는 KSOC이라는 한국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행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도 많이 있어 관심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세필드에서는 주로 트램을 타고 다닙니다. 많이 탈 계획이 있으시면 1달 이용권을 끊어서 타는 것이 저렴합니다. 세필드에는 영국음식이 맛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레스토랑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돈을 아끼시려면 다같이 기숙사에서 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KSOC을 많이 참석하여 친한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2~3주가 지나버리면 이미 서로 친해져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드기 힘들 수 있습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영국에서는 아이슬란드가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슬란드까지 가려면 최소 비행기를 3번을 타야만 합니다. 영국에 살고 있을 때 가보면 좋은 곳입니다. 또한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비행기 경유지의 스탑오버를 활용하여 여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재미있게, 유익하게 갔다 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